

민주연구원 '중소기업과 금융회사의 동반성장을 위한 상생금융지수 실행방향' 정책브리핑 발간

-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(원장 이재영)은 4월 27일(월), 『중소기업과 금융회사의 동반성장을 위한 상생금융지수 실행방향』 정책브리핑을 발간했다.
 - 이재영 원장은 “상생금융지수는 금융권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유인하는 출발점”이라며, “이번 브리핑은 올해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상생금융지수 도입에 대한 의의와 함께 평가지표 마련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제언하는 데 목적이 있다.”라고 밝혔다.
- 브리핑은 상생금융지수 평가지표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3가지 정도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제언하였다.
 - 첫째, 상생금융지수의 기본적인 평가 틀은 동반성장지수의 평가체계를 활용하되, 금융권이 기존에 받고 있는 평가 등을 최대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였다.
 - 둘째, 상생금융지수 지표 개발 과정에서 은행권과 중소기업 등 이해당사자의 참여 및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였다.
 - 셋째, 상대적으로 주관적인 판단이 들어갈 수 있는 체감도 조사에 대한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와 함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동반성장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였다.
- 민주연구원 정상희 수석연구위원은 “상생금융지수 도입은 은행권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유인하고, 성장동력을 회복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.”라고 덧붙였다. /끝/